잘못된 수행은 자신을 활활 태운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㊷ 홍해아를 만나는 현장법사 일행

오계국 국왕의 성대한 작별에 힘을 얻어 앞으로 앞으로!
일행 앞에 또 기막힌 경치에 험준한 산골이 나오네.
경치야 좋지만, 현장법사 지레 겁이 난다.
무슨 요괴가 또 나올까…
그런데 벌써 수상쩍은 기미….
산마루턱에 붉은 구름이 솟구친다.
손오공 개코, 아니 원숭이 코에 요괴 냄새가 전해온다.
비상, 비상! 손오공의 신호에 저팔계, 사오정, 재빨리 요괴 대응 수비 태세로 전환.
그 숙달된 자세에 현장법사 잡아먹으려 엿보던 요괴, "이거 쉽지 않겠구나"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여기가 어드메더냐. 산 이름은 호산(號山). 요괴는 어릴 적 이름이 홍해아(紅孩兒), 커서는 성영대왕(成聖大王)이라고 부르는 요괴로다.
오래 수행하고 인삼과까지 먹은 현장법사 잡아먹어 불노장생 좀 해보렸더니 이렇게 방비가 튼튼하면 어쩌는가?
꾀를 낸다. 뻔한 꾀를 낸다. 산적한테 습격을 당하여 집안 어른 모두 죽은 가엾은 어린애로 분장을 하곤 나무에 매달려 살려달라 외쳐댄다.
자비심 넘치는 현장법사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손오공을 시켜 업고 따라오게 한다. 손오공 요괴 냄새 말는 데는 도가 텄다. 이놈의 요괴, 눈치 봐서 패대기쳐 죽이리라.
요괴 또한 눈치가 백단, 얼른 술법을 써서 빠져나가 눈을 뜰 수 없는 강풍을 불러일으키곤,
현장법사를 채서 달아나버린다.
놀란 일행들 우왕좌왕…손오공이 토지신과 산신령을 불러서 을러대어 요괴의 신상명세를 밝힌다.
기본 사항은 위에 말한 대로, 거기에 우마왕과 나찰녀의 아들이라는 추가사항까지….
그런데 우마왕과 손오공은 예전 요괴놀음할 때 손오공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
손오공 가슴을 탕탕 친다. 으흠, 형님의 아들이라니 내가 가기만 하면 해결되겠군!
과연 그럴까? 삼년동안 찾지 않으면 친척도 친척이 아니라는데….
"조카야! 내가 네 의숙부(義叔父)란다" 했다가 "이 못된 원숭이놈! 사기치지 말아라!"
호된 조롱만 당하고 결국 여의봉 뽑아들고 한바탕 드잡이질. 그런데 요괴 신통한 재주가 있네. 엄청난 불을 일으키는 불수레가 다섯 대. 거기다 코를 툭툭 두드리고는 입에서 엄청난 화염을 뿜어낸다.
이름하여 삼매진화(三昧眞火)라. 삼매의 힘에서 나온 진짜 정말 참된 불이라네. 저팔계 사오정은 말할 것도 없고 손오공도 숨이 콱 막혀 거의 질식사에 이른다.
네 바다의 용왕을 응원군으로 청하여 비를 퍼부어 보지만 신묘한 삼매의 불이로다.



그림 · 최주현

용왕의 힘으로도 끌 수가 없다. 결국 어쩔 수가 없어 관세음보살님을 청하기로 하는데 중간에 일도 많다. 관세음보살로 분장한 홍해아에게 저팔계 잡히고 손오공이 홍해아 아빠 우마왕으로 분장하여 홍해아 놀려 먹고….
손오공이 관세음보살님 찾아 뵌다. 홍해아가 자신의 모습으로 변장하였었다는 데 발끈하신 관세음보살님. 정병(淨甁)에 세상 큰 물이란 물의 정수를 모조리 담고 탁탑천왕에게 천강도 36자루를 빌어서 신통력으로 연화좌로 꾸민다.
정병을 물을 쏟아 부어 삼매진화의 효력을 차단하고 손오공을 시켜 홍해아를 유인한다. 보살님 앞에까지 유인된 홍해아, 보살님에게까지 덤벼드는데 보살님은 얼른 하늘로 날아오르네. 멋진 연화좌만 덩그러니 남았구나.
보살 쫓아낸 기분이 한번 척 앉아서 폼을 내는데 보살님 주문 한마디에 연화대가 원래의 천강도로!
천강도에 꼬치 꿰인 요괴, 항복!
관세음보살님, "너 회개 했구나"하고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다.
손오공 머리에 씌웠던 부처님이 하사한 테두리 아직 남은 것 있네. 그놈 씌워서 완전히 굴복시키고 마정수계를 내리시곤, 새로운 이름을 내리신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선재동자라 하리라"
53선지식을 찾아뵌 선재동자가 여기서 탄생하였다네!
물론 서유기에서만…. 하핫.
요괴잡던 손오공 보살 쳐다보기가 한번 더 반복되지만 그래도 손오공 기분 좋다.
동지가 생겼거든, 머리에 금테 두른…주문 외우면

홍해아의 '삼매진화'는 수행의 과보
삼매는 선악 없이 이뤄내는 경지
수행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드러내

조여들어 대굴 대굴 구르는…
기분 좋게 떠날 수 있어라! 앞으로 한동안 힘든줄도 모를 것 같아라!

이제 이야기는 서유기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홍해아(紅孩兒) 등장의 대목입니다. 우선 이름부터 풀어 볼까요? 홍해아는 '붉은 아이'라는 뜻이네요. 물론 어릴 적 이름이지만요. 장성해서는 성영대왕(成聖大王)이라 하고요. 그 장기는 삼매진화(三昧眞火)네요. 이들 이름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우선 '붉은 아이'라는 어릴 적 이름은 바로 삼매진화라는 불의 색깔과 관계가 있지요. 그리고 성영대왕은 '원영(元嬰)을 이룬 대왕'이란 뜻이지요. 원영이 무엇이냐고요? 도교 수행의 한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도교 수행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해 드렸지요? 단로(丹爐)에 약재를 넣고 고아서 금단(金丹)을 만들어 먹던 금단술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었지요? 그래서 몸을 단로로 삼고, 몸에 있는 정혈(精血)을 약재로 삼아, 호흡으로 불때기를 하여 몸속에 금단을 만드는 수행이 기본이라는 것도 말했습니다. 그러한 수련이 일정한 경지에 오르면 원신(元神)을 단련하여 원영(元嬰)을 이룰 수 있다고 하네요. 근원적인 기운을 정련하여 그것을 사람 모습을 한 어떤 정신적인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순수한 기의 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원영은 엄청난 공효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홍해아는 그런 금단대도를 닦아 일정한 경지를 성취한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지의 수행을 통해 얻은 신통력이 바로 삼매진화인 것이지요. 삼매란 무엇인가요? 불교의 수행을 요약하면 계, 정, 혜의 삼학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지요? 삼학 가운데 정(定)이 바로 삼매입니다. 범어로는 'Samadhi'인데 음역을 하여 삼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삼매진화라는 것은 '삼매의 수행을 통해 얻어진 참다운 불'이라는 의미입니다.

어헛? 나칠계님, 힘차게 손을 드시네요. 무슨 의문이 있으신가요? 아, 네…. . 삼매라는 것이 불교 수행법인 삼학 가운데 하나이면 당연히 훌륭하고 착한 공부일 텐데, 어찌 홍해아같은 요괴가 그런 삼매의 힘을 쓰느냐구요? 흐흠…. 모처럼 좋은 질문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전에 몇 번 했던 것 같군요. 여러 번 이야기해도 늘 처음 듣는 것처럼 받아들여주시는 나칠계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살짝 이야기할 수밖에요.

삼매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했었지요? 삼매는 쉽게 말하면 차분함과 집중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들뜨지 않고, 한군데 몰입하여 집중하는 것을 삼매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악을 가리지 않고 삼매는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의 경지에 가면 절대적인 선을 지향할 때에만 온전한 삼매를 이룰 수가 있겠지요. 악한 지향을 지니고 있으면 온전하게 차분한 마음과 집중된 마음을 얻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절대적인 경지가 아닌 경우라면 여러 가지의 삼매가 다 있을 수 있고, 삼매를 통한 신통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쓰임을 보세요. 독서삼매, 연애삼매…기타등등 삼매…. 다 삼매라는 말을 붙이고 있지요? 그러니까 강한 몰입과 집중이 있으면 다 삼매라 할 수 있고, 그런 몰입과 집중은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힘을 신통력이라 한다는 말이지요. 나칠계님도 혹시 욕심나는 일에 한번 몰입을 해 보시지요. 신통을 얻으실지 모르잖아요? 이크, 정말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게 무언가 하실 것 같은 기세! 스톱! 위험! 경고! 자칫하면 엉뚱한 길로 빠져 신통은커녕 망신살만 뻗친다는 것을, 정중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자, 각설하고. 그러니까 홍해아는 수행 단계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샛길로 빠진, 그러면서도 큰 힘을 얻은 존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행 과정에는 그러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일정한 수행을 통해 얻은 힘을 바탕으로 하는 요괴이기에 퇴치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구요. 아무튼 이런 저런 이유로 흥미진진한 요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에서도 보시겠지만, 정말 재미있는 내용도 많고 시사하는 바도 큽니다. 이렇게 슬쩍 광고를 때리고는…. 다음 시간에 뵙지요.



금강저108염주

천수경·반야심경·관음정근·지장정근을 할 때 이제부터는
108백팔금강저염주를 돌리십시요!

일심으로 한알한알 돌릴 때마다 시방법계 부처님 법구의 무량한 힘으로
수행과 참회를 빛내 청정심이 되고, 전생부터 이생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소멸이 속히되어
망상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불법인연에 따라 해탈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 사찰에서 고통이 심한 신도님에게 천도재가 어려울 때, 발원기도용으로 사용하시면 소원성취가 속히 이루어짐으로 스님들께서 방토방편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며, 사찰불사용으로 적절합니다.
  스님들께는 20% 할인해 드립니다.
- 백팔금강저염주를 소지하실 때 부처님 법단에 7일에서 21일간 올려놓으신 후 사용하시면 효험이 더욱 큽니다.

부처님의 제 1 법구인 금강저를
정심모아 108염주로 만들었습니다!

본래 금강저 1개만 소지하여도 모든 만사의 화근을 물리치고, 악귀잡귀를 퇴치하여 삼재화, 삼재액을 퇴방한다 하였는데, 금번 금강저는 세계 최초로 금니 금강저108개를 모아 일개의 염주로 제작하여 상서로운 불법력을 강화시킨 장엄법구로서 큰 원력을 지닌 법구입니다. 사찰의 불법력과 스님의 신심원력을 한층 돋우게 하여 수행하는 불자라면 누구라도 소지하면 알게 모르게 지은 전생업장 소멸이 되어 참된수행정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 성황리 사찰불사를 기원할때
- 자손득남 발원할 때
- 환자가 속쾌차하기를 바랄때
- 시험에 합격을 기원할때
- 사찰신도가 신심이 흩어져 줄어들었을때
- 새 사업을 개업할때
- 금전 재산이 모이질 않고 점점 줄어들때
- 집터나 가게터가 산란하여 장사가 안되고 재수가 없을때
-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화목하기를 바랄때
- 망상과 마구니로 인해 수행정진이 잘 안될때

전체길이 245cm / 제조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가격 320,000원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 전화 : 010-4233-7099